

1차 포럼 질문지 서술식 응답 전체(포럼위원용)

<1안-대학통합네트워크 기본안>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서술식 응답

1 기존에 확보된 교육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음

2 현지에서 태어나고 자란 인력들의 고급화를 기대할 수 있음

서울대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해 균질화가 필요하다.

국립대간의 서열을 해소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서울대라는 특권층이나 의식을 해소할 수 있다.

그이유는서울대집중현상이9개거점대학으로분산되기때문이다.이는지방분권과발전,지역균형,지역

일반고등의발전에도이바지하는연쇄작용을볼려일으킬수도있다고본다.

국립대를 서울대수준의 예산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서울대수준의 학문적

역량을 갖출수 있기 때문에

한시점에 모든 대학의 서열을 타파하기 어렵기에 지방의 거점 학교를 수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사학법 엉망인 상태에서 성역이 되어버린 사립대학을 믿느니 국립대 중심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차라리 낫다 생각(사회 전체의 대대적 수선이 필요한 상태에서 대학서열 개선에 한해

논의한다는 자체가 국소부위만 건드리는 것 같아 토론을 볼수록 가슴이 답답하네요.

이것도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엔진은 그래도 인데 부품만 바꿔끼우는 것

같아 어느 세월에 방향을 바꾸나 답답)

9개 대학은 적습니다. 시간도 더디고요. 수정안인 최소 40~50개 대학이 연합대상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위 30% 정도의 아이들이 학점과 상관없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적성과 소질을 살리는 교육이 실현될것이라고 봅니다.

거점국립대 수립은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교수 임용과 대학 간 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교육의 병목현상 해소(특히 지역적)와 대학 교육의 상향 평준화는 물론 글로벌시대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국가적인 예산지원과 국민공감대 형성만 된다면 유럽식 평준화와 미국식

다원화모델을 병용해 1차적으로 거점별 국립대학의 활용은 가능하다 생각함

현실화가 가능한 안이라 생각하고, 국토 균형개발과 함께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

거점 국립대 강화가 교육의 지역격차 해소에 기여

수준 높은 대학을 만드는데 필요한 돈이 사립대로 갈 바에야, 국립대학에 지원되어야

옳다. 이미 사립대학에 에이스 사업으로 수백억의 지원이 이뤄지지만 수준 높은 대학이

되지 못했다. 세금낭비할바에 국립대학에 투자하자.

예산 확보는 어떻게?

예산 지원은 필수적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기존의 대학 지원 예산의

삭감과도 연결되는 것이라면 그 지원 예산이 삭감된 대학 관계자들의 반발은 어떤 방식으로

해소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입법이 필수 조건인 경우라면 입법 또한 큰 관건인 것

같아 이를 어떻게 통과시키고, 정책의 안착까지의 얼마나 걸린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국립대학 만큼은 지역별로 동일한 수준의 대학들이 만들어져야 현재의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거란 생각에는 동의한다. 다만 대학 이라는 교육기관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기에

복합적인 고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 맞는 다양한 명문대가 많았으면 좋겠다

서울대에 편중된 교육예산 지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다만, 국립대 우대정책 및 사립대

죽이기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음. 교육예산 지원으로 대학수준이 높아진다는

경제논리가 있음.

대학서열화 자체가 서울수도권에 집중되었기 때문이 주된 원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진입장벽 또한 낮추는게 매우 중요하고, 지역으로 분산되어 균등하게 발전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방 거점 대학과 그 지방에서 산-학협력을 할 수 있다면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사립대까지의 변화를 요구하기에는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림. 현재의

사학의 지원을 줄여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립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사립대까지의 변화를 요구하기에는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림. 현재의

사학의 지원을 줄여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립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의 학교로 만들면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방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발전

지역균형발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방향성에는 동의합니다만,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산만 지원하면

거점 국립대가 서울대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보충되었으면

합니다.

재정 확보 가능한 대학 무상교육의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의 1단계라고 생각한다
 대학 통합 네트워크!
 수도권 집중 현상의 심화 부작용에 대한 대안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과 심각한 대학
 서열화의 완화를 위해 좀 더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는 국립대학이 필요하다고 봄
 지방국립대에 지원을 집중하여 경쟁력 있는 국립대를 양성하여 인기 있는 사립대와 국립대만
 남기고 나머지 국고만 축내는 지방사립대는 도태시켜야 우리나라 대학들의 수준이 높아짐
 좋은 품질의 교육을 받았고, 그 성실성을 인정 받는 데에 대학만큼 잘 드러낼 수 있는
 지표가 아직 우리 나라에는 없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는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여지가
 더 넓어진다면 경쟁과열이 낮아지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 봅니다. 그럼 사회구조의 변화가
 서서히 달라질 것입니다.
 켈리티가 낮아지지 않을까, 는 사실 상 우리의 목표입니다. 대학의 이름이라는 메리트가 없어져야 우리
 본연의 능력을 발휘하는 세상이 옵니다.
 거점국립대는 지역 학생들의 희망입니다. 돈이 없어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거점국립대는 그동안 희망을 주었습니다. 다만 예산격차와 인지도가 같은 국립대인데도
 불구하고 서울대와 차이가 너무 심해 조정이 필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같은 유럽권 국가들의 대학
 운영 방향과 비슷하다는 측면에서요.
 전국에서 서울대에 대한 갈망이 높은 이유가 명문대라는 이유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유일한
 한곳. 하나라는 것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거점국립대가 각 권역에 설립되고 명문대로
 자리잡는다면 인 서울, 서울대만을 고집하지 않겠조~ 대학이 서열을 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 하고픈 공부를 더 할수있는 배움의 터로 자리잡기 위해서도 정말 환영하는
 방안입니다.
 서울대가 사교육 조장의 주 원인이기 때문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국내에 4~50개
 정도를 만드는 것은, 국제적인 경쟁력 증대 및 더 많은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음
 이것이 가장 최선이라 생각하기 때문
 대학 통합 구조조정 반드시 필요
 거점국립대를 발전시켜야 지역인재 유출이 줄어들고 지역 균형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하나만 있으면 모두 그 대학에만 목 매달아 경쟁도 치열, 부동산 값도 치열하니까
 나머지 안은 사실 모든 혹은 많은 다수 대학이 참여하게 되어 전체를 부실하게 만들 수
 있음. 지역 인재 양성과 함께 지역인재들이 지역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장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필요
 평소 같은 생각
 간판보다 '교육의 질'에 기반한 대학 또는 학위에 대한 평가가 엄밀하게 이뤄지고 그 전체
 하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더 많이 만들 수만 있다면 학벌병목 현상은 완화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학평준화의 의미로 이해되는데 이에 매우 동의한다.. 하지만 서울대 수준으로 만드려면
 그에 맞는 교수진과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런 환경을 갖추기에는 현실성, 실현가능성은 조금
 낮은 것 같다
 교육활동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임.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 유치원때부터 선행학습과
 사교육이 시작되고 협력이나 연대보다 경쟁에 시달려서 고등학교때는 경쟁이 극치를 이룸(
 학창시절이 전쟁터로 인식되는 아이들이 80%가 된다고 함) 아이들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음. 학벌카르텔이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음
 지방 소멸 방지
 지방 인재 육성 수도권 인재 풀림 완화
 대학이 서로 상생하는 분위로 업그레이드 되길 원한다.
 하이퍼 초경쟁사회 극복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대학서열화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

보통이다, 서술식 응답

서울대수준으로 거점국립대를 만든다고 대학서열이 해소되기 힘들다고 생각함
 대학을 가지 않아도 행복할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선행되어야 함
 병목현상 완화
 수정안에서 말씀하셨듯이 초기에 9개보다 더 많은 40여 개 대학을 동시에 시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면서도 들어갈 예산과 국민적 합의 도출, 정치권의 동력 확보 등은 여전한
 과제로 보입니다.
 병목현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예산지원을 통해 다른 대학들을 서울대수준으로
 만든다는게 현실적인지는 의문입니다.
 본질은 대학간 예산과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지원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대학서열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
 서울대 수준의 예산 지원이 9배 필요할 것이다 예산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좀더 체계화
 되지 않는다면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쏠리것 같다 거점대학에 예산이 들어가도 서울대를
 선호할것 같다
 대입경쟁 완화 차원에서 필요,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는 성인된 아이들에게도 지역안에 대학 못지 않은 배움의 공간 환경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학은 학문적 선택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에게도 굳이 대학이 아니더라도 배움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복지의 균등은 지역
 사회 예산에 수반되고 점차적으로 늘려나 가야 한다고 봅니다
 대학 평준화를 해야 한다.
 네 분의 발제 내용은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발제자들의 사용언어 선택이
 중요하게 느껴지네요. 서열화를 없애고 다양화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 이 포럼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또 '서울대 수준'이라는 서열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를 발제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서울대는 서울대대로 두고 9개 거점 국립대에 진학하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해외 우수 대학들에 교환학
 생의 기회를 많이 주거나 거점 국립대 교수들의 교환 연구 등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교육 수준의 '다양화'
 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어떨까요?
 9개는 적다고 본다.
 예산 확보가 먼저인 것 같다. 2조 8천억원 수준의 규모를 8조 수준(서울대 7800억 *
 10개)으로 어떻게 올릴 것인가
 큰 틀에서 거점 국립대 방안은 적극 찬성하나 세부적으로 지금의 예산 방식 시스템 하에서
 대학 업그레이드가 실현될지 의문이고, 진정한 화학적 결합을 통한 상향 평준화의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을지도 우려스럽네요. 또한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 인구 규모
 여러 산업 인프라에서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 대학만으로 유인할 수 있는 분산 효과가
 얼마나 클지도 의심이 듭니다.
 대학의 개수가 부족하다
 기대하는 효과에 미치지 못함

-동의못한다, 전혀 동의못한다 서술식 응답

예산 확보와 예산 분배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미지수이다. 교육의 문제가 경제적 문제로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참여하는 대학의 수가 적다. 효과가 적을 듯
 서울대 수준의 거점 국립대로 수준 향상하기까지 시간이 걸릴뿐 아니라 서울 사립대에
 집중되는 지원율이 9개대로 옮겨지는 효과만 발생할 것 같네요.
 재원에 대한 구체적 지원 가능성이 우선 검증되어야 할 것 같다.
 9개 거점대로는 서열을 해소하기는 부족한 것 같고 오히려 학생들이 몰릴 것 같다.
 지방 소재 사립대학이 역차별 받는 부조화 현상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대학서열화는 더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예상된다
 이 방안대로라면 서울대가 새롭게 9개가 다 생기는 셈인데, 기타 대학과의 서열은 그대로
 남는다고 생각한다. 대학서열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1. 서울대 수준의 예산을 9개의 대학에 쏟아붓는 것은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하고, 국민과
 타대학을 설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2. '서울대 수준'이라는 단어를 전면내 내세우면 은연
 중에 기존의 서열의식을 더 강화하게 됩니다. 3. 이 최고 대학연합체에 들어갈 만한 실력이
 있는 학생은 적극 환영하겠지만, 그 외의 더 많은 학생들은 더 큰 박탈감만 느끼게
 됩니다.
 대학 이름 및 입학방식 변경없는 예산지원만으로는 평등한 교육구조를 만들 수 없습니다.
 지금의 서울대가 막대한 예산지원을 받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비해서 훌륭한
 인건,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나 사회에 기여하거나 엄청난 교육효과가 있는 것
 같지도 않지만(서울대 수준의 허상), 서울대 학위의 양적 완화보다는 국립, 공영형 사립대학
 간의 연합체제를 구축하고 필요한 곳에 더 지원을 함으로써 균형발전하고 모든 대학이
 좋은 대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KY대를 나오지 않아도 취업, 사회경제적 지위,
 임금에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보다 대학서열화 해소에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수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서울대든 지방대든 한국 대학 교육은 오직
 일방향이면서 주입적이기 때문에 뭐가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차라리 각 지역별
 국공립대에 지원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사립대를 정리하거나 국공립화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다.

<2안-대학통합네트워크 수정안>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서술식 응답

이미 서울의 중요 사립대가 부분별 학과의 지방이전 작업으로 인해 지역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이 아닌 연합의 의미가 공감됨
 이렇게 국립대와 사립대를 연계해서 더 많이 네트워크화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되어야 진정한 대학서열화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학 연합이 가능할까 의문이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인강 시스템도 익숙해졌다.
k-mooc의 시사점도 이어받아 수준높은 교수의 강의를 공유해야한다. 한정된 자금으로 모든 대학을 서울대로 만들수 없고 불가능하니 연합은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시장논리에 따라 점점 가치없는 대학이 망해가길 기다리는 수 밖에.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30%정도가 대학교육을 보장 받아야 서열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 대학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시설들이 너무 좋으니 굳이 더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대가 사교육 조장의 주 원인이기 때문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국내에 4~50개 정도를 만드는 것은, 국제적인 경쟁력 증대 및 더 많은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음
 대학 구조 조정 필요성 인식
 거점국립대만 집중 지원할 경우 사립대의 반발이 커짐. 거점국립대가 지역의 국사립대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듣고 싶은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출신대학 학벌 등이 없어지고 능력위주 채용의 장도 넓어질 것이다
 사립대도 존중 공생방안 필요
 위의 이유와 같다
 지방 대학 경쟁력 강화
 국립대만 통합해서 육성하면 일부 명문 사립대입시 쏠림현상이 발생할수 있다.
 대학의 평준화
 많은 예산이 들지만 그래도 전체 수험생의 30%는 네트워크의 출발로 잡는 것이 실제적인 서열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대학간판을 모두 '한국대'로 통합하는것은 매우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국립대는 대학비율이 다 합쳐봐야 13%밖에 안된다고합니다.
 서울을 시작으로해서사립대학들역시점진적으로국립네트워크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병목안화와 역량이 키워질것 같다.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이다.
 지방대학이 살 수 있는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입, 지역의 회사와 연합해 미래를 위한 주요 과들을 지역별로 배치하는 특성화대학을 추진해야 한다. 과별로 지역을 안배.
 기존의 대학이 적극 활용되어야하며 특화 및 분권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소재 대학의 상향식 발전모델이라 생각됨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 50여개가 되면 4.5등급의 학생들까지도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되므로 공정성의 원칙이 잘 적용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지방사립대와공동연구를통해학교수준을높힐수있고재정지원을함으로써지역의교육기관으로써그역할을다하도록유도할수있다고생각한다.
 지방 사립대의 공동화와 교육서비스질 하락을 방지를 위하여.
 거점별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만 시행한다면 한계점이 있으므로 일부 사립대학을 대학연합체제에 포함시켜서 교육의 양극화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연구중심,교육중심,평생 및 직업교육 중심으로 글로벌대학 학위체제 구축 속에 지역 인재 유출에도 기여할수 있을것으로 생각함
 1-1과 같은 이유이나, 1-1보다는 재정적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현실화 가능성과 추진 속도는 조금은 낮을 수 있을 것이라 봄.
 사립대의 자발적 참여는 어떻게?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 구축이라는 큰 그림은 충분히 이해가고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며, 좀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
 규모를 키워야 하니까
 사립대가 찬성하고 참여할지 의문임. 물론 지방에서 생존위기를 고민하는 사립대는 참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립대의 입장에서는 학교통합으로 생각할 수 있음. 학생들도 찬성할지, 반대할지 좀 더 구체적인 연구(설문조사)가 필요함.
 거점 방식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권역별 네트워크의 거버넌스를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여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더 고민되어야 할 듯 합니다. 또한 동 네트워크는 기존 대학의 구조조정과 병행 추진될 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시너지효과가 있을것 같다는 생각
 현재 이와 유사한 정책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컨소시엄을 구축하는 것과 각 학교간 조건이 매우 다르므로 그에 상응하는 개별적 조절이 필요하다
 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용 문제도 1안에 비해 커보이고요.
 대학통합네트워크가 쉽지는 않겠지만 국립과 사립이 함께하는 대학통합네트워크는 학생들의 정보교류및 더 나은 대학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듯합니다.
 원안에 대한 타협안이지만 다수 대학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이 될 수도 있음.

시간은 오래걸리겠지만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한다.
대학은 능력평가하는 곳이 아니고 학문을 연구하는 교육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평준화를 해야 한다.
1안보다 좀 더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연락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이다, 서술식 응답

현재 거점국립대 연합도 실제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각종 사립대의 연계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국립대가 거점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단 연구원으로 대학원생으로 오랫동안 국립대에서 일하고 생활했는데 국립대 교수와 교직원들은 사업에 소극적이고 회피하는 성향이 큼니다. 게다가 국가 사업책임자들중 사업비를 부당하게 낭비하는 양심없는 교수 교직원 정말 많습니다. 심사를 아슬아슬 피해가는 요령과 타성으로 작동되는 사업은 국가 예산 낭비입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공직자들 조사부터 하는 게 우선입니다. 국립대 거점화 육성사업 말긴다는 것에 두려움까지 느껴지네요.

원안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하므로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이 아니라 '우수 대학으로 육성' 정도로 목표를 수정하면 어떨까요?

수도권 대학에만 학생들과 예산이 몰리는 것과 같이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지역 학생들과 예산이 몰릴 것 같음. 그 외 대학들도 상생방안이 필요함.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잘 이루어질 것인지도 의문이고 그냥 형식적인 제안 뿐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제안인지는 모르겠다.

기본안보다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시간이 더 걸리고 협력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사학법이 엉망에 교육부도 터치 못하는 상황에서 (한마디로 믿음이 안 가는 사학 재단) 공동의 목표가 세워질지 의문

사립대 이사회에서 자신들의 자율적 운영권과 같은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참여할지 회의적이다.

너무 광범위하고 학교별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포럼을 온라인으로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사립대가 국립대와 협력해야 할 이유가 그들에게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궁극적으로 대학은 국가가 주도하는 국립대와 자생에 기반한 사립대로 나뉘어야 함

궁극적으로 대학은 국가가 주도하는 국립대와 자생에 기반한 사립대로 나뉘어야 함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학통합네트워크로 수용할 수 있는 입학정원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적절하냐는 부분 때문입니다. 한편 대학통합네트워크로 제공되는 고등교육이 학문중심적인 교육인지 취업을 위한 실용적인 교육인지 등에 따라서도 그 범위를 전체의 30%나 50%나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만들기 위해 투여될 재정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학정원을 어느 정도로 결정할 것이냐는 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대 9개만 하면 사립대로 쏠림이 시작되고 학벌사회 폐해를 없애기 어렵기 때문에 좀더 많은 대학을 묶어내는게 필요하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흐지부지 될 것 같음

조금 더 심도있는 토론의 공론화를 거쳤으면 함

지역 대학교육의 질 보장

1번의 답과 같습니다.

통합네트워크로 지방대학의 질적 향상이 된다면 긍정적이나 출신학교를 따지는 사회에서 졸업장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궁금하다

발제자 네 분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용하시는 용어가 지금의 교육체제의 기득권자들에게는 반발심이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립대의 국립대 전환이랑 어떤 점에서 다른지, 50개 대학이 참여했을 때 수용되는 대학생 30-40%와 그 외의 학생이 위계화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지, 대학마다 연구분야나 교육분야가 특성화되지 않고 획일화되는 우려는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동의못한다, 전혀 동의못한다 서술식 응답

국립대엔 지원을 몰아주고 인기없는 사립대는 도태시켜야 마땅함
국립대와 사립대는 설립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사립대의 경우 많은 사립대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고, 장기적으로 폐교의 위험도 있습니다. 사립대의 경우 철저하게 이윤추구적 사고방식이 근간에 있습니다. 공립대는 의무성과 무상성의 가치를 약간이나마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질이 다른 두 집안을 섞는 것은 물과 기름을 섞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예산 분배와 함께 서열과 지역을 내려놓고 정치적 안배와 협력이 쉽지 않을 것이다. 단순 참여는 개개별 대학의 구조가 남아있는 형태로 여전히 차별구조를 만든다.

현실성이 없는 것 같다.

사립대 거버넌스 개편이 먼저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방안부터 순차적인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동학위제'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더 들어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해 대학의 구조조정은 자연스러울 것이기 때문
 1안의 경우 국립대에 한해 10곳을 통합하자는 안인데, 이마저도 진전이 되지 않아
 공공대는데 거기에 더해 사립대를 포함하여 40-50여곳을 한 번에 통합하자는 것은
 현실성이 너무도 떨어지는 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교수님께서 1안에 대한
 독점문제를 제기하셨는데 혹여 그렇더라도 일단 '통합대학'을 1차로 완성하고 그 다음
 독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15-16년 동안 정체된 물의
 물꼬를 트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3안-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안>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서술식 응답

부울경 거점 국립대는 연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기반해서 단계별로 확장하는
 것이 그래도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를 통해 거점국립대 공동협력하고 난 뒤 지역국립대와 사립대가 참여하는 방안은
 단계적이고 순차적이며 효율성이 있어서 실현가능성이 높아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산 마련과 국립대 중심은 맘에 듭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이미 사회에서 서열화
 된 위치에 튼튼하게 박혀있는 엘리트주의에 과묵한 기득권의 수동적, 회피적 또는 방어적
 태도로 처음 의도대로 갈지...
 1-2단계까지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3단계는 국가의 재원 확보 및 사립대의
 자율권 주장 등으로 현실성이 결여되어 보인다.
 학점을 교류할 수 있게 해서 대학 간 서열을 부의미 하게 하는 것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에 있어 예산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고 교육의 효율성 측면에서 비용부분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함
 추진에 있어 예산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고 교육의 효율성 측면에서 비용부분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함
 사립대가 80%인 현재 시점에서 공유성장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발제1에서처럼 일부 대학을 서울대수준의 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제한적이므로 국공립대 위주로 투자가 이뤄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역 대학교의 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과정
 공동입학, 공동학위제는 서울대입학생이 9배가 되고 사립대로 확대된다면 대학 서열
 완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서열이 점차 없어지고 대학 졸업장이 큰 의미가 없어진다면
 성적에 맞춰 의무적으로 진학하는 대학보다는 꿈을 찾아가는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 같다.
 학교별 위계화가 사라지면 학과별 위계화가 강화되지 않을까? 최근의 의대생 논란을 봤을
 때 우리 사회의 엘리트 의식에 대한 비판 논의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학서열을 없앨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공동입학공동학위제. 학점교류도 필요합니다. 단
 시기와 단계를 앞당겨 지역국립대도 함께 시행하는 것이 실질적 효과를 얻게 되고
 30%정도의 많은 대학이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사립대가 발목잡을 가능성 많다 의사결정이 늦을 수 있다
 연합체제가 대학간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면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제 1의 수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제2에 이어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좋았으나 설명이 다소 두서없고 정리가 안된 듯
 하여 아쉬운 부분이 있었음.
 연합
 2번과 유사한 합의점 내지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1안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면 중국에는 발제2에서 제시한 방안이 가장 현실성인 높지 않나
 싶어서요.
 학점교류, 공동입학, 공동학위제추진이 되다면 대학등록금도 자연스럽게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단계별 추진은 동의하지만 참여하는 대학교 수가 적을 것 같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점진적 평균화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현실 적용하기에 찬성한다.
 절차적 추진이 합리적임
 자료집에서 참고 자료로 제시해주신 비교표에서 저 개인이 느끼기에는 가장 설득력 있는
 안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성장체제는 현재의 국가교육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거의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사립대의 참여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이고, 국민들의 거부감도 덜할 것 같습니다. 이 대학연합체는 일차적으로
 '비경쟁적, 비서열적'이라는 점이 중요하고, 그 이후에 점차 대학의 수준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자세한거는 잘 모르겠음

우리나라 현실이 고루 반영되어 있으면서도 발전적인 제안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대학과 연계된 학위체제, 공동입학과 공동학위제를 통한 제도 변화를 통해서 고등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전환할 수 있고요.

'엘리트기득권에 저항적인메세지'가되지않는언어의선택에대한말씀이참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결국결정자의위치에있는많은사람들이엘리트기득권이니까요.

2단계의 구체적 내용이 좋은 것 같다.

경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나 지방에 있는 국립대나 국립대인 게 같으므로, 국립대 위주로 일단 시범적으로 학점 교류, 공동입학, 공동학위제를 추진하고 나중에 명문 사립대까지 이에 뜻을 같이하면 대학 서열 해서 가능할 것

국립대와 사립대 사이의 벽 허물기 학교 차별 해소

지방대 육성

현실적인 방안이 단계적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구체적인 순서가 바르게 제시된 것 같고, 추진 방향도 동의한다.

국립 사립대학의 공동 발전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실현 가능성 높음

현재의 교육정책은 물론 지난 15년간 정책이 많은 변화를 주었으나 학벌 위주와 입시 위주의 중등 교육으로 사교육은 증가하였고 따라서 공교육이 주객이 전도된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함 따라서

공유성장형 대학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대학 등록금은 물론 대학 운영비와 교수 연구비 등 우선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이 된다면 1차적으로 국립대 연합체제 운영 후 단점을 보완 후 2차적으로 사립대학이 참여하는 공유성장형 대학 연합체제가 구축되어야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생각함

반대세력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 같고 지지부진한 논의를 새롭게 전환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발제 내용에 대해 이미 고민을 거쳐 가장 오랫동안 고민해 온 결과로 보여지며 현실적으로 가장 접근 실현이 가능해 보입니다. 시민과 학생들이 현 입시체제에서 느끼고 있는 좌절감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앞선 김종영 교수님의 구상과 유사한 맥락이면서도 진일보한 방안이라고 점에서 충분히 추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단계별 진행이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네요. 국가 주도적으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방안으로 보이고 '공유 성장'이라는 가치는 언론, 대국민 설득에도 유리한 선언적 의미와 변화 프레임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항을 최소화하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생각됨

-보통이다, 서술식 응답

역시 학생들의 거점국립대 선호와 거점국립대 위주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 같다.

국립대교수 순환 보직제, 대학연합체제 용어 선점 의견에 동의함. 교육, 일자리, 문화 인프라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 아무리 좋은 대학이 지역에 있어도 일자리, 문화 인프라가 없으면 졸업후 다시 수도권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음.

1번. 의제와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대학을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

그런다고 대학서열화가 바뀔까요?

예산 확보의 중요성은 외국의 대학예를 들어보니 공감은 하지만, 구체적인 분배내용을 알지 못하니, 예산의 낭비만 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현재의 사립대 경우처럼 캠퍼스의 무분별한 상업화나, 입학지원서수수료등의 남발로 인한 거대한 수입이 과연 학생들의 교육발전에 어떻게 기여되고 있는지 통계를 알고 싶네요,,

굉장히 더딘 과정으로 가다가 좌초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1.2단계 거점국립대 위주의 안으로 서열화 완화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 국립대 교수들은 심각한 문제라고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복지부동이다.

예산 확보 방안이 먼저 마련될 수 없음. 거점국립대와 지역국립대 및 사립대 발전방안이 있어야 그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음

좀 복잡한 것 같다

이렇게 변화한다 해도 연대만으로는 국민들의 스카이드 선호 사상?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대학서열화의 시급함과 절박함을 고려할 때 원장님의 3단계안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그러나 국민 설득의 논리로 국가 균형발전 의제 선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 공립과 사립의 갈등등이 생길 것 같다.

1,2,3단계로 진행하는 것보다 좀 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것 같다.

단계별이 합리적으로 들리긴 하지만 시간을 끌다 호지부지 될 가능성이 존재

세부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음.(저의 이해 수준이 부족했을 수도 있으나 자료 수준이나 설명내용도 세부적이지는 않았다고 생각함.)

현실적으로 될까 싶다. 공동으로 입학 학위 등을 준다는 것이 학생들에게 매리트가 없어 보인다

2단계 공동입학 및 공동학위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 같음. 대학

운영의 자율성 보장(예, 총장선출제)에는 동의함.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아보임.
 학령인구가 줄어들어 대학이 줄어야 함. 모든 대학을 지원하는 것은 하향 평준화로 갈 수 있음.
 대학평준화를 해야 한다.
 학벌 타파와 대학 질적 향상을 목표로하여 단계별과 추진하고 있다.
 어느정도대 국립대 평준화는 이룰수 있어 보이지만 본질적이 평가방식은 변화가 없다.

-동의못한다, 전혀 동의못한다 서술식 응답

공동입학 공동학위제는 상위성적을 가진 학생의 반발이 클텐데 가능할까 의문이다.
 서울시내 사립대학들이 그들만의 리그처럼 특권화된 대학이 될 수 있다.
 큰 의미가 없다.
 통합'이라는 용어를 문제삼으시며 '연합'이라는 방안을 제시하셨지만 이 역시 협업이 이루어지기 힘든 우리 사회에서 실행하기 쉽지 않은 지점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2012년 이러한 방안을 제시하신 이후 '통합'의 논의 시절보다 좀 더 진일보한 진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경쟁력없는 지방 사립대는 도태시켜야 함

<4안-대학입학보장제안>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서술식 응답

장기적으로 대학은 입학보다 졸업이 중요합니다. 지금 대학 커리큘럼과 수업 수준이 낮은 이유는 입학하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졸업 중심으로 학생 관리하면 전국 각지의 실력있는 교수와 커리큘럼이 부각될 것이고 우수 인재 양성하는 좋은 학과,대학원, 연구팀이 부각되겠죠. 그러면 입시도 단순히 스카이에 몰리지 않게 될 것이고, 대학입시 한번에 인생 걸도록 만드는 살인적 행위를 교육과 성장이라 부르지 않아도 되지 않겠지요..
 병목현상이 있는 경쟁지향형 대학입학을 벗어나 대학입학의 문을 넓혀 대학네트워크를 통해 상생과 시너지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대학, 특히 소위 상위권대학에서 참여하는 사례가 많아지지만 하면, 분명 대학서열화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이해당사자(특히 통폐합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 등)들이 얼마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제도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세수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본다.
 대학의 입학은 보장하고 졸업할 때 일정 수준을 갖추도록 하는 의견 좋습니다. 단, 다른 발제자님들이 말씀한 국립대 통합으로 그 안에서부터 서열을 없애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 선발에 있어 현재의 줄세우기식의 입시는 과감하게 한번에 바꿀 필요가 있음
 학생 선발에 있어 현재의 줄세우기식의 입시는 과감하게 한번에 바꿀 필요가 있음
 일단 담보된 교육의 질을 가진 대학을 늘리고 그 대학에서 누구나 공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자는 것에 대해 깊이 동의합니다.
 가장 동의하나 가능할까에 대한 염려도 따릅니다.
 거대한물줄기의변화를바꾸기위한힘있는전환이필요하다
 대학 입학 기회가 어렵지 않다면 대학 서열 완화에 도움이 될것같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 대학의 선호도가 높을 경우 학생 선발을 위한 기준이 모호해지는건지 궁금하다
 입학 허가제와 더불어 졸업 요건을 어렵게 해서 정말로 공부할 사람만 대학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부로는 너무 예산도 문제다
 이 방안 역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서열 해소 뿐만 아니라 공정성의 원칙에도 잘 부합한다고 본다. 따라서 발제 1의 수정안과 발제 2의 안과 도 충분히 접목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한다.
 상생
 대신 그 자격시험은 그동안 대한민국이해왔던 시험의 형식과 달라야할 것 이다. 또한, 대학진학후 학내에서 하향평준화가 이루어지지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해야할 것같다
 대학에서 관심있고 깊이전공을 통해 전문인을 다양하게 양성
 기회균등 배움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대학입학보장제는 고등교육 보편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입시 선발 방식과 대학 서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지지합니다. 다만 국민적 동의에 대한 문제, 가령 일정 성적의 경계 구간에서 또 첨예하게 등위를 가리는 문제등에 대한 우려는 좀 있습니다.

대학입시가 말 그대로 최저 충족요건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한다고 생각함.
발제자의 말씀처럼 대학입학보장제의 혜택을 알리고 국민 여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포럼참가자 중 한 분의 말씀처럼 모든 국민에게 나이, 성적에 관계 없이 사회생활을 하다가도 원하면 언제든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개방형입학제도도 필요하다고 봄.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입시와 대학등록금 폐지가 선행되어야함.
상생대학네트워크와 입학보장제는 입시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임. 다만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의 교육의 질이 균등해야 성공할 수 있음
희망사항이겠지만, 점차가 아니라 출발부터 확대해 나갔으면 한다. 완화,이해등등 고려하여
매번 바뀐 교육제도가 아닌가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다.이제는 소수를 위한것이 아닌, 미래를 위해 다수에게 기회를 주고, 역량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본다.
일정 성적을 갖추면 대학입학 기회를 준다는 것이 대학서열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됨.
가장 실현가능성 있다고 생각

1번 안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구현해 낼 수 있다고 봄.
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는 안이다. 그리고 선별된 대표적, 혁신위를 구성하여 제도 바꾸는 노력도 함께 한다. 4개 지원 대책을 통해 평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반을 조성하는 안.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일정성적 갖추면 들어가도록하는 부분은 적절하다. 현재의 평가할 능력이 없는 것을 인정하고 평가 입학을 낮추고 기회를 확대해야한다.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점이 높은 사람만 하고싶은 교육을 받는 것은 권리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질 좋은 교육을 공유해야합니다.

입시제도의 폐지가 동시에 이뤄져야한다고 봅니다. 초중고교육과정 또한 전면개편되어야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된다. 대학을 들어가기위한 방법이 다양해 졌으면 한다.

혁신의 충분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학입학보장제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지만 전문분야등 아이들이 하고픈 공부를 더 할수있게 일정성적을 갖추면 입학할수있게 하고 대학의 교수의 질을 높일수있는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상생대학네트워크를 만들어 국공사립대학을 늘려나가면 내 지역에 대학을 믿고 갈수있어 학생, 학부모의 심적, 물적부담이 적을듯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갈 모델인 듯 하다.

입학이 쉬워야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과 개성을 찾아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가고자 하는 아이들 모두 쉽게 입학 하게 하고 졸업요건을 높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이름없는대학들은입학생들이줄어서문을닫아야될것입니다.그학교에서특화된수업은학생들이들으실수도복수업네트워크를만들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저는전국의대학네트워크를만들어야 된다고생각합니다.온라인수업을하면학생들은어떤대학의수업을들어도문제가없을것입니다.

입시문제와 대학연합의 문제를 같이 다루어주었기 때문에 훨씬 더 진보된, 균형잡힌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문대 서열이 없어져야 학생들이 진짜 삶과 연결된 공부를 하고 진정으로 행복한 배움이 이루어진다고 봄

지금의 입시제도는 대학입학으로 지적서열을 낙인하고 그러한 것이 평생을 따라 다닙니다. 아이들의 성장기가 온통 대학입학을 위한 준비기간, 경쟁이 되지 않으려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검증 수준의 시험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최저충족요건입시제도'라는 말이 아이들 지식의 하향평준화라는 의미로도 느껴집니다.

'고등교육자격입시제도'라는 말을 생각해 보았는데, '고등교육을 받을 최소한의 지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의미가 포함된 다른 표현은 어떨까요?

상생대학네트워크를통해대학교육의질도높일수있다고생각합니다.아이들이대학이탈하는이유중 하나는좋은대학이라고들어가도수업의질이너무낮기때문입니다.대학끼리의네트워크를통해학생교류,온라인강좌를 열어두고 대학끼리 더 좋은 교육을 위해 고민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러나 추천배정을 하는 것이 어떨지는 의문입니다. 대학 주변의 인프라가 고르게 발전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 또한 불공평이 될 수 있기에...네트워크추천배정을 해도 학점교류가 완전히 자유로워야 여기에 대한 불만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추천배정을 하여 지역순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미네르바 스쿨'의 경우도 학년마다 지역, 나라를 달리하여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대학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수능에서 최상의 성적을 받지 않는 한, 명문대학에 갈 기회는 줄어들고, 일정 성적만 갖추면 대학 입학기회를 주어, 대학 서열이 무의미해질 수 있을 것

대학간 네트워크 정보 공유

지방대 육성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다.

민주적,객관적이고 변별력과 공정성을 토대로 국립대와 사립대에 기회와 참여가 이루어져야하고 대학의 상향평준화를 위해서는 시설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교수의 자질이 중요하므로 이에 따른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아무리좋은시스템이라하더라도오랜기간정착된현대대학입시제도와대학교수방법을한번에바꿀수는없으므로로드맵을가지고단계적으로진행하는것이맞다고생각함

중,고등교육 경쟁이 완화되고
 교육의 질이 달라지도록 집중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1 위 입학보장제와 더불어 졸업과 수료의 이분제도 도입해서 졸업자는 계속 전문화된 대학원 진학까지 이끌고, 수료자는 사회인으로 수렴되는 제도까지 나아갔음 좋겠네요, 현재의 대학은 전공이 굳이 전문화된 역량으로 사회에 쓸모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2 궁극적으로 학생이 가고픈 대학에 갈 수 있다면, 졸업후 굳이 대졸 서열과도 무관한 사회가 될 수 있다면, 맘껏 하고픈 일을 하고, 다양한 능력들로 사회에 진정한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됨~
 매우 이상적인 제안이라고 봅니다.
 이는 대학서열화뿐만 아니라 사교육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열은 한꺼번에 무너뜨려야지만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조금씩 바꾸면 다른 방식의 서열을 또 찾고 거기에 피해자가 또 생기며 그런 부작용 속에 진보는 갇히게 되어 있다.
 간단하고 1,2번 대답을 다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입시로 인해 아이들이 황폐화되어가고 미래에는 컴퓨터가 해주어 필요도 없는 주입식 지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학들이 평준화 되고 입시가 보장된다면 고등학생들이 좀더 학창시절을 다양하게 즐기고 직접 부딪혀보는 인생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모든 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같다

-보통이다, 서술식 응답

서열화와 경쟁에 익숙한 국민정서와 관념의 벽을 깨기가 어렵다.
 대학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렵게.
 다른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어차피 인구가 감소하면 대학입학보장은 당연한 것이다 수도권 일부 대학에 몰림과 쏠림 현상이 없어지지 않는 한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일정 성적과 예산등의 기준이 애매모호할 것 같다.
 입학정원수는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0개 80개 120개 대학이라는 범주가, 실제 대학수나 120개 대학이 포함할 수 있는 입학 정원에 관하여 저 개인으로서는 가능할 수 없는 부분이기때문에 '보통이다'고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입학 보장제는 왜 이렇게 와 닿지가 않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일정성적의 기준 마련, 상생대학네트워크의 구체적 방법이 어떨지 모르겠다.
 여론 및 기득권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듯
 앞으로는 평생교육을 받아야하는 사회에서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은 입학(중화상원격수업)시키고 졸업학점을 잘 관리하면 된다.
 국민의 세금만 또 사용하고 변하진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여 대학을 일정한 공모의 방식으로 가면 일회성 사업처럼 진행될 것 같고, 목적이 전도될 염려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적인 주장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아보임. 추첨제를 통한 입학과 무작위 배정된 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됨.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은 좋으나 학부만을 기준으로 랜덤 배정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예상됨.
 학교수준, 졸업생의 진로 등에 따라 몇몇 학교로 몰릴 수 있음
 대학평준화를 해야 한다.

-동의못한다, 전혀 동의못한다 서술식 응답

실현가능성이 의문이다.
 대학입학보장제 자체에는 동의하나, 대학서열이 공고한 상태에서 대학입학을 보장하는 방안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차라리 김용영 교수님의 1안대로 진행하고 그러한 통합대 출범이후 추진해볼 만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정해진 숫자들은 잘못 하다간 끼워 맞추기 식이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일정 성적 갖추면 입학'은 좋은 생각으로 여겨집니다(이미 사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순환에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교육계가 가만 있을지 의문이지만). 입학은 비교적 쉽게 하더라도 졸업 부분을 어렵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생? 이란 단어 좀 안 좋아하는데,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어떤식으로 상생할지....
 많은 대학이 존립할 경우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무엇일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입학보장제의 전제조건 논의 필요. 대학내 학과별 차이 해소 방안 필요.
 대학입학 보장은 졸업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만 졸업정원제 실시에 따른 깊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일단 순위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지금과 다를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원래 대학교육의 목표 및 취지는 본인이 원할 때 원하는 분야의 학문을 심층 연구하는 목적이 있는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학위취득의 목적은 개인의 학업성취가 아니라 취업성공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갇혀있어 그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고 싶은 사람은 가도 되지만 연구성과에 따라 졸업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스템은 어떤가요?

우리나라 실정에 안 맞음
말씀하신 시스템은 프랑스나 북유럽 선진국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의 의식수준이 아직 선진국 수준으로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서열화에서 우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가 선진국으로 변화된 이후에 시도할수 있는 해법입니다.

<5안-권역별 연합대학안>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서술식 응답

사립대에게도 선택권이 있기에 찬성
국립대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동의합니다.
실행해볼만한 가치가 있음
단계적이며 순차적으로 대학연합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대학연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상관없이 얼마나 역량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연구를 해내는가에
초점을 맞춘 대학 개혁 방안이라고 본다. 다만 대학의 이해관계자들이 얼마나 이런
대학서열화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개혁에 참여할 뜻을 보이고 있는가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서울대 이상의 교육의 질과 환경을 담보한 대학의 수가 지금보다
 많아지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재정이 투자되어야 한다면 거점국립대와
지역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사립대를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도 안됩니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서열 해소에 도움이 될것같다
위의 안들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완성
앞선 통합 네트워크에 대한 발제와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세부적인
다른 접근은 더 현실적인 가능성을 고려해서 만들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
서울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막고 학생들이 자지역에서도 충분히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해야한다.
마찬가지.
파리 1 대학등 유럽식 방식으로 보이며, 궁극적으로 대학에서 실력을 평가해 해야 한다.
대학 연합체제를 기본으로 해야겠고요. 그 속에서 특성있는 권역대학을 육성하는것이
순서이지 않겠나 싶은데요. 거점국립대는 여전히 힘이 없는데, 우수한 독립 사립대가
함께해야 좀더 많은 대학들이 참여함으로써 연합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권역별로 대학연합을 이룬다면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할것같고 거기에 따른 차별적인
요소가 생긴다면 또다른 갈등을 낳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역별대학연합안에 대한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대학연합을 구성하면 대학간의 경쟁이
적어지고 교수의 질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1.2.4안의 핵심 내용은 거의 비슷한듯, 일단 지방의 대학거점대를 확보하고, 지역의
특색화된 대학들과 연합하고 차츰 서울 중요 사립대들의 지방학과 이전 계획을 잘 활용해서
사립대까지 연합해보자는 내용이 좋네요,
2번과 유사한 의견
단계적 연합구성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사립대의 생각이 궁금하다
학벌, 임금 차별 없는 사회구조의 변화는 별도로 하더라도 모든 대학이 다 좋은 대학이
되어야 대학입시 서열이 철폐될 거라 생각함. 대학이 특수화, 전문화, 다양화로 가야한다는
특색화된 연합체제가 대학체질을 개선하고 대학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됨. 현재 대학들은 발제자의 말씀처럼 백화점식 종합대학으로 서울 상위권
대학들조차도 국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을만한 특화된 교육과정이 없음.
결국 우리 대학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은 국립대의 확장이다. 이를 위한 예비 단계모형으로
적합하다고 생각.
경쟁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대학 연합 필요성 인식
지역 지원
국가균형발전, 지자체의 참여 등을 통한 총체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변화 전략이 많이
동의되었습니다. 다만 권역연합과 각 네트워크들이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보통이다, 서술식 응답

사립대 거버넌스 문제 해소 필요
 대학 수준의 연합보다 각 전공, 사업단 등의 미세한 연계부터 시도하는게 현실적일듯
 하네요. 대학은 아직 서열 개념 강해서 내임밸류 차이나는데 학교수준에서 연계 잘
 안되니까 연계 잘되는 학과 사업단 등 소규모 연합 우선 추진 제안합니다
 위의 2-1번과 마찬가지로 포럼을 온라인으로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서 보통으로 체크했습니다.
 인구의 지방 분산이 먼저 진행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방안임.
 인구의 지방 분산이 먼저 진행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방안임.
 과정 중에 학생들의 혼란 최소화 필요
 시장화된 고등교육 체질을 바꾸기 위해 공영화된 고등교육 투자 방침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립대와 함께 출범했을 때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한다거나 취업에
 유용한 학과 위주로 선정되길 원한다거나 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다.
 서울수도권중심으로 해소못한다
 편입
 대학연합은 좋은 발상이지만 참여범위가 너무 넓으면 교육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음.
 참여범위를 처음에는 좁게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넓혀야 함
 시간이 지체될것 같다.
 신의 한수라 명칭한 대학 연합체 구성이 누구를 위함인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는듯
 하다. 설명의 부족인지 이해의 부족인지 ... 좀더 논의가 필요할 듯 함
 대학 서열이 사라지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저의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앞의 제안과의 차이점을 얼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잘 모르겠음
 수도권 외 지역국립대의 진학이 입시의 실패가 아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전략적 선택'이 되게 하자는 말씀에 매우 동의합니다.
 그러나 텍스트로 제안된발제내용과포럼에서말씀하신내용이다소상이하게느껴졌습니다.
 포럼에서말씀하신김명연교수님의방안들은교육이외의주변의큰것이먼저해결되어야우리가고민
 하는대학서열이해소된다는제안으로느껴졌습니다.답다운의방식으로요.지금의입시제도의과열
 이사회적문제(김종영교수님이말씀한여러병목현상)와떨어질수없는문제이기때문데입시제도만
 이야기한다고해서'대학서열해소'를해결할수는없지만대학서열화문제해소에대한정책을제안할때
 는당장입시생과학부모의입시부담을해소할수있는구체적인형상이보이도록제안해야한다고생각
 합니다.
 대학연합체제를 위해서는 최소 3조 5천억여원이 투입이 되어야하고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한번에 많은 대학이 참여하기보다는 좀더
 단계적인 절차와 검토를 통해 행정적, 제도적인 기반과 함께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너무 복잡해 중도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복잡하다
 이 역시 이방법만으로는 국민들의 스카이다 선호사상이 없어지지 않을것같다
 앞서 1.2와 비슷한 느낌
 참여하는 사립대학의 질적인 면을 변별할수 있는 객관적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다 비슷한 이야기인듯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동의하지않는 사립대들은 어떻게 되는건지,
 과연 수직적으로 서열이 되어 있어 대학연합이 잘 될까? 의문
 시도는나쁘지는않지만기대는힘들다고생각이듬
 다 비슷한 내용아닌가요..
 여타 토론자들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음. 결국 지방대 통합합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 폐교위기에 놓인 학교가 아닌 이상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움.
 상기 이유와 동일
 대학평준화를 해야 한다.

-동의못한다, 전혀 동의못한다 서술식 응답

김종영 교수님의 2안에 반대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좋은 말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지고
 지금처럼 시간만 흘러갈 거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사립대가 참여하는 순간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갈등으로 인한 조정시간이 길어질 것만 같습니다.
 대학 연합을 어떤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대학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닌 제 3자들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합에 끼기 위한 눈치보기, 암묵적으로 깔려 있는 상위권 대학 눈치보기,
 로비? 이런 것 없을 까요?
 역시나 지역편차를 줄이기에는 좀 힘들것 같습니다
 경쟁력없는 지방 사립대 살리기 식 정책이므로
 기존 문제의 종합적인 방법론만을 제시하고 있어 현실성이 희박할 것 같다.
 지역으로 권역으로 한정 짓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럼지방의뚝뚝한학생들은수도권으로가려고할것입니다.지역에상관없이전체대학을통합해야한
 다고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해야 힘이 생길 것이다.
서울 중심을 탈피하지 못하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형 사립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독립 사립대 역시 이윤 추구의 가치 아래에 참여할
것이기엔, 교육보다는 대학의 재정구조에 먼저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결코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고대 등 독립 사립대 중 명문 대학은 이에 참여하지 않아 대학 서열 해소 효과가
낮을 것이다.